

<정아현 허승현 친족성추행 사건 파일>

작성자 : 정수현

1. 누가?

가해자 : 허승현(04년생 만 18세, 남)

피해자 : 정아현(08년생 만 16세, 여)

-> 둘은 사촌관계 (정아현 기준, 허승현은 '아빠의 누나의 아들')

2. 언제?

: 처음 시작한 것은 2023년 9월 말 추석 연휴

단 이 때는 정아현이 꿈인줄 착각하였다고 함 + 다음날 허승현이 너무 아무렇지 않고 평소처럼 자신을 대하니 오해했다고 생각하여 넘어갔다고 함

그러나, 2024년 5월 11일 03시 전쯤부터 친할머니가 거실로 나오기 전인 06시 쯤 까지 2차로 사건이 발생하였음

3. 어떤 일이?

: 거실에서 잘 때, 정아현이 자는 줄 알고 허승현이 정아현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정아현의 몸을 만졌음

브라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팬티 안으로도 손을 넣었으며 손가락까지 넣었음

4. 정아현은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가?

: 평소 친하게 지내고 잘 따르던 사촌오빠(허승현)에게 그런 일을 당해 배신감과 공포감으로 몸이 얼어붙어 저항하지 못하였음

5. 이후 허승현은 어떻게 정아현을 대했는가?

: 아무렇지 않은 듯 대수롭지 않게 대했음

6. 정아현은 이 사실을 언제 이야기했는가?

: 처음 11일 오전, 정수현에게 갑자기 집에 가면 안되냐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이유를 말하지 않아 정수현이 아직 할아버지 발인도 해야하는데 어떻게 가냐고 넘어갔음. 이후 그날따라 정아현이 정수현 옆에 딱 붙어있었음

다른 사람들과 모두 헤어진 11일 17시 15분 쯤, 정아현이 그제서야 정수현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음

*정수현(만22세, 연나이24세)은 정아현의 친언니 이며 사건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임
정아현이 당시 언니 정수현을 툭툭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깨웠지만 일어나지 못하였음

7. 이후 진행된 일들 기록

1) 24년 5월 11일 17시 13분 아빠 정진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함. 아빠가 어떻게 해야하냐고 이야기 해, 정수현이 허승현의 친누나인 허유진(연나이 29세)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마무리함

2) 24년 5월 11일 17시 20분 정수현이 카카오톡으로 허유진에게 전화할 수 있냐고 물어봤고 허유진이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함 그러나 허유진이 허승현은 그럴 낡이 안되는 아이라며 그럴 리가 없다고 허승현을 두둔함

3) 24년 5월 11일 17시 28분 정수현이 허승현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에 대해 물어봄
: 허승현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음 (녹음파일 존재)

정수현이 전화를 끊자, 허승현이 2차례 더 먼저 전화를 걸며 “어른들한테는 이야기 안 하면 안돼? 내가 아현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할게” 라고 발언하는 것까지 “녹음 완료함”

이후 정수현이 “미안한데 이미 유진이언니랑 아빠한테 얘기했어” 라고 하고 전화를 끊은 후로 현재시간 24년 5월 12일 20시 2분까지 허승현과 연락이 닿지 않음

이후 허승현의 친누나인 허유진에게 카톡으로 허승현이 인정한 사실을 전달하며 녹음을 했음을 알리자 파일을 보내달라하여 전송하였고, 이에 허유진이 (허승현을 향하는 듯) “미친놈”이라는 답장을 보냈음 정아현은 그동안 당하고만 있었냐고 물어봐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나를 깨웠다는데 내가 못일어났어”라고 정수현이 대답하였음
허유진이 정수현에게 “그럼 허승현은 정아현이 모른다고 생각했나?”라고 물어봐,
정수현이 “그건 개한테 물어봐야할듯”이라고 대답하며 카톡이 마무리됨

*이 부분은 카톡으로 진행하였기에 기록이 남아있음

4) 해당 내용은 아빠 정진열에게 들은 내용

: 허승현이 정수현과의 마지막 전화를 끊고, 바로 본인의 엄마에게 가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음 허승현의 엄마는 허승현에게 화를 냈고, 허승현의 아빠는 정아현의 아빠인 정진열에게 사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정진열이 이야기하는 부분 또한 녹음완료”

5) 이후 정아현의 엄마 이순임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허승현의 엄마에게 전화통화를 걸었음(24년 5월 11일 21시 53분) 허승현의 엄마는 “미안하다 그런데 애가 덩치만 컸지 아직은 애기라서 뭘 잘 몰라서 그랬다 본인이 성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생긴 일인 것 같다

호기심에 그랬다”고 허승현을 두둔했음

6) 이에 이순임은 누가 호기심으로 몇 번 만지는 것이 아니라 몇시간동안 반복적으로 위 아래 중요부위를 전부 만지고 손가락을 넣냐는 반박을 하며 통화를 마무리하였음

7) 피해자 정아현의 의사는 어떠한가?

: 피해 당사자인 정아현은 강력하게 허승현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선처하거나 합의할 의향 또한 없음을 밝힌다.